

한국상하수도협회, '2005 WATER KOREA' 개최



전국 상하수도인의 축제인 '2005 WATER KOREA'가 '물과 빛'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광주에서 개최됐다.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허남식)와 광주시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행자부·건교부·산자부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8개국 140개 환경 관련업체가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물 산업 종합박람회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 산업 종사자들에게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물환경학회·환경관리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에서 학술발표회, 상하수도 포럼, 업무개선사례 발표회 등을 통한 기술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전국 상하수도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 행사였다.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이 행사는 대구·부산·대전에 이어 매년 지방순회로 개최하였으며,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국제 상하수도 전시회, 세미나·학술발표회, 업무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상하수도 기능

경진대회, 물 사진 전시회, 상하수도 시설 견학, 한마음 족구대회, 상하수도인의 밤 및 상하수도협회 총회 등이 있었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일본·영국 등 8개국에서 140개 친환경업체 및 서울시와 6개 광역시지자체 홍보관 등 물 관련기관(470개 부스)이 참가해 상하수도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줬다. 특히 중국의 상하수도 국영기업체 사장단들이 이 전시회에 참석해 정부에서 인증하는 국가인증마크를 획득한 14개 업체의 국가인증단체관을 별도로 전시하였다.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에서는 상하수도 전문 과제별로 362편을 발표해 기술·정보·경험 등을 교류함으로써 상하수도 분야의 신기술 개발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에서 상하수도 대민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해 일선 상하수도시설 현장 종사자들로 구성된 16개 시·도 32개 팀이 참가해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펌프분해조립분야 등에서 그동안 연마한 솜씨를 겨뤘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기술상 시상식 개최

‘제7회 환경기술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8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국국제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이재용 환경부장관,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명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500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환경기술상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상용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1995년도에 처음 시상한 이래 2003년 제6회 시상까지 총 42건의 우수 환경기술을 발굴·시상해 왔다.

올해 제7회 시상에서는 사전오염예방·대기·수질·폐기물·환경기반, 여성환경기술인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통령상 1인, 국무총리상 2인, 환경부장관상 6인(팀 4 포함)등 총 9인(팀)이 선정되었다.

대통령상(대상)에는 「환경친화적 무연내식 황동소재」를 개발한 대창공업(주) 연구개발팀이 선정됐다.

대창공업(주) 연구개발팀은 본 기술의 개발로 음용수용 부품소재의 부식억제 및 누수방지 개선효과를 통해서 연간 7,500억원의 수자원 절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 93억원(2004년 기준)을 수출하였다.

무연황동은 일반황동에 가공성 향상을 위해 첨가한 납(Pb)함유량(2~3%)을 0.1% 이하로 줄이고, 황동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금원소를 첨가하여 개발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인 ELV, RoHS, WEEE 등의 환경유해물질 함유한계 및 용출량을 만족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또는 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부상으로는 상장과 상금 3천만원 수여됐다.

국무총리상(우수상)은 「배연 탈질촉매 제조 및 상용

화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배연탈질팀과 「슬러지 순환형 초고속 응집침전공법(URC)」을 개발한 네오엔비텍(주)·인하대학교 네오엔비텍팀이 수상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배연탈질팀은 환경부 ‘G-7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1995년부터 10년간 지원받아 상업용 배연탈질촉매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최초로 전력산업에 적용하여 그 동안 전력 수입에만 의존하던 촉매 가격을 크게 낮추어 수천억원의 외화절감 효과가 있다.

네오엔비텍(주)·인하대학교 네오엔비텍팀은 최근 대두되는 오염총량관리와 방류수역의 수질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진 물리화학적 수처리 공법으로서, 광범위한 수처리공정(산업폐수, 하수처리, 하수재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공법이며 BOD, 총인(TP), 부유물질(SS), 중금속 등의 처리효율에 우수하고 시설 규모가 작으며 매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장차 대규모 처리시설을 대체할 수단으로 부각했다. 부상으로는 각각 상장과 상금 2천만원 수여됐다.

환경부장관상(장려상)에는 「카드뮴이 없는 친환경 동합금소재」를 개발한 (주)하나금속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소재개발팀과 「VOCs 및 악취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한 (주)에이스엔 송희남 대표이사, 「KSBNR(Kist Shinwon Biological Nutrient Removal)을 이용한 오수 및 하수 고도처리기술」을 개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용수 책임연구원, 「나선이송환, 리프터 및 다공성체망이 적용된 회전 건조로를 이용한 하수슬러지 건조기술」을 개발한 (주)수테크 전청수 대표이사,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식물성 조성기술」을 개발한 (주)아썸 권오병 대표이사, 「페콘크리트로부터 생산된

재활용 모래, 무기성 슬러지와 불포화폴리에스테르를 바인더로 결합한 폴리머 중공관 경계블록 제조기술」을 개

발한 (주)대호에코텍 안선희 대표이사가 차지했으며 부상으로서는 각각 상장과 상금 1천만원 수여됐다.

친환경상품진흥원, 최대규모 친환경상품전시회 개최

다양한 친환경상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05 친환경상품전시회」가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 5일간 열렸다. '자연,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코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개최되는 동 전시회는 친환경상품진흥원, 경기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재단, MBC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산림청, 고양시, 전경련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개최됐다.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경제 3주체(생산자, 공공기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재미있고, 교육적이며, 다양한 체험위주의 전시회로 진행되며, 제품군별 친환경상품 전시와 함께 일반인이 친환경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초록 페스티벌, 그리고 친환경상품 관련 국제 워크숍과 공공기관 구매촉진대회 등 관련 행사로 이뤄졌다.

우선 친환경상품 전시관에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마크·우수재활용 마크 등 국가공인 친환경마크 인증업체와 환경성이 검증된 친환경상품 생산업체들이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여 제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제품의 친환경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전시회 기간 중 소비자·환경단체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하는 신나는 초록 페스티벌 행사들이 계속 펼쳐졌다.

초록 페스티벌에는 '명사들의 환경이야기', '환경영화상영', '도전! 그린벨', '달팽이 환경학교', '장바구니 패션쇼'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관

람객들의 친환경 관심지수를 상승 시켰다.

특히 전시 기간동안 오전 10시부터 6편씩 상영되는 서울환경영화제 수상작 등 우수 환경영화와, 오후 2시에 유인촌(방송인)·오세훈(변호사)·이종임(요리연구가)씨 등 유명인사들이 환경문제와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명사들의 환경이야기'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전시회 기간 중 공공기관과 산업계차원에서 친환경상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특별행사들과 국내·외의 친환경상품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컨퍼런스들도 개최됐다.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도'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를 개최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방법 교육과 함께 친환경상품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할 예정이다.

전시회 공동 주관기관인 경기도는 금번 전시회에서 '경기도의 녹색구매'를 선포하고,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와 경제단체(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및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시민단체(환경재단 및 경기의제21)가 참여하는 녹색구매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녹색구매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